



12면

새해 의산, 청년과 함께 기회의 땅 일군다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1월 8일 수요일 (음 12월 9일) 제3661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북교육, 대한민국 중심으로... 정성 다할 것”

### 서거석 교육감, 2025년 교육정책 발표

새해 10대 핵심과제, 학력신장·책임교육 투트랙으로 제시  
학력신장, 독서인문·수업혁신·교과학습·진로진학 강화  
책임교육, ESG 실천·특수교육·다문화교육·교육협력 등

“전북교육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학력신장을 더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확실히 높여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정기 부교육감과 국·과장 등 본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취임 이후 해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하는 10대 핵심과제를 올해는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이라는 두 트랙으로 제시했다. <관련기사 16면>

먼저, 학력신장은 △독서·인문교육 확대 △수업혁신 △교과학습 강화 △특성화고 취업 지원 확대 △진로·진학 지원 체계 강화 △교육활동 보호 강화 등 6가지를 핵심과제로 들었다. 독서·인문교육은 학력의 기초인 문해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서 교육감은 “학습 부진 요인으로 문해력 취약을 꼽는 지적이 많다”며 “지난해 효과가 입증된 ‘이침 10분 독서’를 초·중학교 전제로 확대하는 한편,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아이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고, 미래형 학교도서관에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업 혁신은 △개념 기반 탐구수업 △AI 디지털 활용 수업 △하이브리드 수업 등 교사들의 연구와 교류, 연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전북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질문과 토론이 있는 교실’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컴퓨터 기반 평가 시스템(CBT)을 구축해 초등학교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관리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특성화고 취업 향상에도 공을 들인다. 특성화고와 기업을 매칭해 현장실습과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사관학교와 취업맞춤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 연계 현장실습에 더 많은 기업과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습시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에 거점형·권역별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설치하고, 1,000명의 전문직업인 진로멘토단을 꾸려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등 진로·진학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교장 책임 민원대응체계가 잘 작동하는지 현황을 점검하고, 회보작성 지원단과 교원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어, 공교육을 강조하는 책임교육은 △ESG 실천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사진 오른쪽)이 7일 교육청 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핵심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다문화교육 지원 강화 △교육협력 등 4가지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서 교육감은 “공교육의 책무성은 안전한 학교생활, 늘봄,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건강한 급식 제공 등 학교 교육 전반을 책임있게 살피는 것”이라고 말했다.

ESG 실천은 학교용 생태전환 프로젝트 운영, 연 4회 자원봉사의 날 운영, 일회용품 청제 반입 금지 등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모두를 위한 교육인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수교육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40개의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다문화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들이 부모 나라에 대한 긍지를 갖고 부모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부모 나라 언어교육을 확대한다.

교육협력으로는 지역뿐만 아니라 기

업, 대학, 공공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의 건강한 교육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데 힘을 쏟는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을 정책 기조로 삼아 올해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며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여 취약계층의 지원을 두텁게 하고, 누구도 교육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9일까지 전북 전역 많은 눈도, 재대본 1단계 비상근무

시군 등과 함께 합동대책회의  
제설제 살포 등 대처 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오전 1시 40분 도내 3개 시군(정읍, 순창, 부안)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행정안전부 주관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이어, 관계부서·유관기관·시군이 함께 대설 합동 대책회의를 긴급히 개최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7일부터 9일까지 전북 전역에 걸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 적설량은 10~20cm, 전북 서해안과 남부 내륙 일부 지역은 30cm~40cm 이상의 폭설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강풍과 함께 기온이 급격히 하락하고, 10~30mm의 강수도 동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비상근무 상황관리 △제설 및 한파대책 점검 △피해현황 모니터링 △취약시설 안전 조치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대설 및 한파에 대비한 다양한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대처 방안으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교량, 터널, 고갯길, 경사로 등 취약구간 및 상습결빙구간에 대해 제설제 중점살포 △급설대비 5대 취약분야(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에 대한 예방 강화 및 안전 조치 실시 △한파 취약계층 관리방안 △한파 쉼터 및 응급대피소 개방기간 확대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품 비축 점검 등이다. /이만호 기자

## 강한 전주 경제 구현... 지역 농식품기업 성장 돕는다

### 전주시, 올해 총사업비 8억400만원 투입 7개 사업 추진

전주시가 강한 경제 구현을 위해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지역 농식품기업의 성장을 돕기로 했다.

특히 시는 최근 혼란스러운 정국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을 이겨내기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농식품기업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도 제공하기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올해 △전주 농산물을 활용한 우수 품질의 가공식품 생산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 △기업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총 8억4000만 원을 투입

해 농식품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농식품기업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공시설 인프라 구축 △홍보·마케팅 △가공식품 상품화 등 3개 분야의 총 7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자본력이 부족한 농식품기업에 대

해서는 필요한 시설 및 스마트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각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개발과 판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마케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첨단화와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지난해 총 4회에 걸쳐 추진한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기



전주 맛배기 전경

업 의견을 반영, 올해 신규사업으로 정보력 및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 농식

품기업 20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전문 연구기관과 연계해 R&D·경영·홍보 마케팅 등 기업별 맞춤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대학, 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전문 멘토단을 구성해 농식품 역량강화 교육과 1:1 멘토링 지원 등을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전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전시·홍보관인 ‘전

주맛배기’를 활용해 총 10개 농식품기업을 선정하고 월별로 1개 기업에게 시식·체험행사를 진행토록 하는 등 전주 기업 브랜드 홍보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시는 지역 내·외 규모 있는 박람회와 전주 농식품기업의 참가를 지원하고,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전주 농식품기업과 소통·협력하며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 무주군의 번영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변화, 함께하는 의정, 내일을 준비하는  
무주군의회가 되겠습니다

